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지에프홀딩스'
지주사 출범
L1



Lif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재생치료제 '아톰'
국가첨단기술 인정
L2



'월 만원에 10년 거주'... 전남도, 만원주택으로 청년 잡는다

고흥, 보성, 진도, 신안 4곳 선정
청년층 주거안정 위해 주택공급
최초 4년 거주, 출산 시 3년씩 연장



전라남도 주거정책 심의위원들이 진도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현지 조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00호를 공급하겠다는 김영록 도지사의 발표 이후 발 빠르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 군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들은 도심지에 위치해 학교 및 보육시설, 판매시설, 주민 편의 시설 등 입주 청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주요 선정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관광 관련 종사자, 순천대학교의 글로벌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와 신안은 섬 지역 숙박형 국내 관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요 증가와 수산업업을 위해 귀여하는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

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최초 거주 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보다 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월 임대료를 1만 원만 부담함으로써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늘봄학교 2800개교 운영... 초1 74% 참여

시범시행 한달 간 100개교 늘어
외부강사 등 고용창출 효과도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1학기 시범시행 한달 동안 100개교 가까이 늘어 2838곳으로 확대됐다. 전국 초등학교 46% 규모다. 참여 학생은 13만6000명으로 초등 1학년 중 74.3%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3월 이런 내용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발표했다.

당초 늘봄학교는 지난 3월 전국 6175개 초등학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제로는 예상보다 37% 많은 2741개 학교에서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은 이달 참여학교를 38곳에서 최대 150곳으로, 광주에서는 32개교에

서 45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1학기 안에 전체 초등학교 절반에 가까운 48%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대 2963개교가 참여하게 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3월 4일 대비 1만4000명이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학기 초 1만900명에서 현재 1만 7197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 증가했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 교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의 현장 안착 지원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

"만개한 벚꽃과 함께 경주 보문단지 달려요"

경주시-경주시체육회, 마라톤 개최
보문 호숫가 도는 아름다운 코스

'제3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6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및 도심 일원에서 만개한 벚꽃과 함께 펼쳐진다.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함께 개최하는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국내·외 1만 2500여명이 일찌감치 참가 신청을 하면서, 접수 50여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올해 대회는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풀코스는 제외하고 하프코스과 10km, 5km 세 부문만 개최한다. 참가자 접수 결과 5km는 전년 대비 88%로 다소 감소한 반면, 10km는 전년 대비 119%, 하프는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로 알려진 보문호를 가족·연인과 오래도록 뛰고 싶은 참가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는 미주권은 물론 중국, 홍콩, 베트남, 방콕 등 31개국 700여명의 외국인들이 신청서를 내면

서,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한 것을 실감케 했다.

종목별 코스를 살펴보면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앞을 출발하는 5km는 보문바르게살자 표지석을 반환해 달리며, 10km는 보문 호숫가를 한바퀴, 하프는 경주여고 삼거리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코스다. 특히 대회 당일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코스 곳곳마다 벚꽃비가 내리는 장관이 연출될 전망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서울시, 가임기 남녀 임신준비 무료 지원

지난해 3만명 지원... 올해도 이어가

서울시가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참여자가 3만명에 육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습관, 음주, 흡연력 등 임신 고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건강설문조사 결과 총 4만3436건을 전문기관(대사중후군 센터(비만), 정신보건센터(우울증), 금연클리닉 등 6개 기관)으로 연계했으며, 임신하기 전 위험 요인을 증세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 생식기능 검사 뿐만 아니라 풍진, 성병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 일반건강검진 여자15종, 남자14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소득 30% 증대 이끌 농어업인 모집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각 분야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가 농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어업인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소득증대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선발된 농어업인은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개인별 소득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1:1 코칭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자격요건은 경기도내 주소지와 사업장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중 연간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소득증대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오디션 선발 50명과 수시모집 250명으로 진행된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4월 4일 (木) 음력: 2월 26일

수도권 날씨 10~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 연천 6/20, 동두천 7/21, 가평 6/19, 파주 7/20, 서울 10/20, 양평 8/20, 인천 9/19, 수원 10/19, 용인 10/19, 평택 9/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정후, 6경기 연속 출루...오타니는 '침묵' /사진 뉴시스
▲김하성, 세인트루이스전 4타수 무안타...3G 연속 안타 불발

▲황의조, 6주 만에 그라운드 복귀...교체로 10분 출전
▲손흥민, 비유럽 선수 최초로 토트넘에서 400경기 출전



▲NBA 필라델피아 '돌아온' 엠비드 앞세워 OKC 꺾고 2연승 /사진 뉴시스
▲류현진, 롯데 상대로 세 번째 선발 등판...'통산 99승' 재도전